

제11회 우수리포트 공모대회 우수상 수상작

근대이행기(1896~1903년)의 국민형성과 여성교육  
-『독립신문』과 찬양회(贊襄會)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상미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 이 글은 2009년 2학기 '동아시아 국제정치론' (담당교수: 장인성) 강좌의 리포트이다.



# 차 례

I. 들어가며: 근대이행기(1896~1903년)의 국민형성과 여성교육

II. 초기 개화지식인의 여성교육론: ‘국민의 어머니’를 위한 여성교육

III. 『독립신문』의 여성교육론

1. 『독립신문』의 남녀동등론

2. 『독립신문』의 여성교육론

1) 여성교육은 문명개화의 척도

2) 여성교육은 국력의 원천

3) 지혜로운 아내와 현명한 어머니 양성을 위한 여성교육

IV. 여성들의 목소리: 찬양회(贊襄會)의 활동을 중심으로

1.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발표와 여성단체 찬양회(贊襄會)의 결성

1) 「여권통문(女權通文)」: 충(忠), 문명개화론, 남녀동등권을 근거로 한 여성교육론

2) 찬양회의 결성과 순성여학교 설립

3) 「여권통문」과 찬양회 활동에 대한 당시 신문들의 반응

2. 관립고등여학교 설립운동

1) 찬양회의 상소운동

2) 찬양회의 상소운동에 대한 당시 신문들의 반응

3) 상소운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립여학교설립운동의 좌절

V. 나가며: 그녀들이 생각했던 ‘여성교육’의 의미

\* 참고문헌

## I. 들어가며: 근대이행기(1896~1903년)의 국민형성과 여성교육

우리 일천만 여자들은 학문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고 유의유식으로 남자만 의뢰하여 먹고 입으려 하니 국세가 어찌 빈약치 아니하겠소?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어야 가볍다' 하였으니 우리 일천만 여자도 일천만 남자의 사업을 백지장과 같이 거들었으면 백년에 할 일을 오십 년에 할 것이요, 십년에 할 일을 다섯 해면 할 것이니 그 이익이 어떠하뇨? 나라의 독립도 거기 있고 인민의 자유도 거기 있소. (이해조, 『자유종』, 광학서포, 1910)<sup>1)</sup>

위에 수록된 이해조의 『자유종』은 4명의 부인들이 모여서 당대의 현실을 비판하고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신소설이다. 위 구절에서 '여자'들이 '학문'을 모르는 것은 곧 '국세의 빈약'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남자의 사업을 거들게 되면 '독립'과 '인민의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은 생각은 이해조의 독창적인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당시에 이미 위와 같은 여성교육론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이전 시대까지 여성을 '규중 안의 존재'로만 사고했던 조선에서 이러한 여성교육론은 어떻게 싹을 틔우고 또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일까? 또한 이러한 논의를 전개시킨 주체들은 누구였으며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1876년 개항 이후부터 1910년 한일합방에 이르는 시기의 조선(대한제국)에는 외세의 압력 속에서 새로운 세계질서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개화를 추진하려는 세력들이 존재했다. 이들의 가장 절실한 목표는 자주권확보를 위한 '근대 국가 형성'과 '국민형성'이었다. 이 과정 앞에서 여성들을 바라보는 남성 지식인들의 시각이 변화하게 되었다. 규방 안의 존재로 여겨져 왔던 여성들을 국민형성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다. 즉, 앞서 인용한 이해조의 소설에서처럼 여성들 역시 근대 국가 형성과 국민형성이라는 '남자의 사업을 함께 거들어야 할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교육'은 여성들을 근대적 국민으로 길러내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부각되었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남성 지식인들은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당시의 신문들은 이 논의를 사회에 활발히 유포시켰다. 그중에서도 최초의 민간

---

1) 인용을 위해 참고한 책은 안국선 외 저·권영민 편, 『추월색』(안국선·이해조·최찬식 소설선, 한 국문학전집 30),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7, p. 44.

본고는 외각주 양식에 따라 참고문헌을 밝히고 있으나 본문에 직접 인용된 1차 문헌들의 경우 독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본문 내에 출전을 표기하였음을 밝힌다.

신문인 『독립신문』을 가장 주도적인 논자로 꼽을 수 있다. 『독립신문』은 1896년 창간호에서부터 남녀동등권과 여성교육권 문제에 대해 논했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성들에게 학문을 권하고 정부에 여성공교육을 요구하는 논설을 발표하였다. 한편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여성들의 자발적인 여성교육권 쟁취 운동도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의 여성교육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여성들은 1898년, 한양의 북촌 부인들을 중심으로 「여권통문(女權通文)」을 발표하였고, 곧 이어 최초의 여성단체인 찬양회(贊襄會)를 결성하였다. 찬양회는 1903년까지 관립여학교 설립 운동을 벌이고 직접 민립여학교를 세우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상의 당대 상황들을 바탕으로 하여 본고는 『독립신문』이 창간된 1896년부터 찬양회의 활동이 종결된 1903년까지의 여성교육을 여성국민형성의 핵심적 과정으로 사고하고 여성교육론의 전개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896~1903년이라는 시간대에서 여성교육론은 국가와 여성을 매개하는 장이었다. 당시의 여성교육은 국가 형성의 관점에서 여성을 국민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제이자 여성 스스로 국민이 되기 위해서 선택한 전략이었다. 여성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는 글들에서는 필자를 막론하고 여성교육이 근대국가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나라’, ‘국운(國運)’, ‘문명지국’, ‘충인지심’, ‘독립즈쥬’, ‘국가경제학’ 등의 단어가 등장한다. 이는 여성교육이 철저히 국가의 관점에서 사고되었음을 암시한다. 처음에는 문명개화를 주장하는 남성지식인들이 논의를 주도하였지만, 찬양회의 활동처럼 점차 여성들 스스로 ‘국가 위기’를 언급하며 교육권을 주장하는 움직임도 등장하게 되었다. 여성들의 논의 역시 당시 남성지식인들의 문명개화론과 유교적 국가이념인 ‘충(忠)’관념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처럼 국가 차원에서 여성을 교육의 대상으로 논하고 그 효용을 따지는 것, 그리고 여성들이 국운 쇠퇴의 해결책으로 여성교육권을 주장했던 것은 모두 당시의 여성들이 교육이라는 화두를 매개로 국가와 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찬양회의 여성교육론이 남성지식인들의 생각 및 당대 사회의 관념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찬양회 여성들이 발표한 문헌들에서는 국가적 필요를 넘어서서 남녀불평등이라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도구로서 여성교육을 사고하는 부분, 남성으로부터의 독립과 경제적 자립을 열망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여성교육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근대국가형성을 서둘러 추진하려는 내셔널리즘과 여성억압을 문제시하고 여성해방을 지향하는 페미니즘이 연계되고 경합하고 또한 결합하는 장이었다.

근대이행기의 여성교육에 대한 기존연구들의 경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로 역사 연구의 관점에서 당시의 여성교육론과 찬양회의 활동을 다루는 연구들을 발견할 수 있다. 박용옥은 여러 저술들을 통해 남성개화지식인들의 여성관련 개화사상과 찬양회의 활동양상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다.<sup>2)</sup> 전경옥(외)의 2004년 연구서<sup>3)</sup>는 개화기부터 1945년에 이르는 시기의 한국여성 정치·사회사를 다루면서 찬양회의 활동을 여성 사회 참여의 맹아로서 제시한다. 둘째, 남성지식인과 여성들의 자발적 교육권운동을 대립적인 것으로 설정하는 논지의 저술들이 존재한다. 이송희는 2005년 논문에서 한말과 일제하의 여성교육론과 교육정책을 정리하였다.<sup>4)</sup> 저자는 남성개화지식인들이 여성교육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 하 가부장적 가정의 ‘현모양처’를 길러내고자 했던 반면, 1910년부터 진행된 여성운동의 주체들은 여성교육론을 내세워 남녀동등과 민족주의를 부르짖었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홍인숙의 2006년 논문<sup>5)</sup>은 1890년대 신문과 잡지에 나타난 여성교육 담론의 양상을 검토하고 여학교 설립운동을 1기(1898~1905년)와 2기(1905~1910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찬양회가 여성의 교육과 지식획득을 온전히 여성을 위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개화지식인들이 그녀들의 활동에 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분석한다. 끝으로 본고의 방향과 유사하게 여성교육을 국민 국가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는 연구가 존재한다. 2009년에 발행된 이형량의 논의<sup>6)</sup>는 개항에서 한일합방에 이르는 시간동안 국민국가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여성교육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음을 서술하고 조선의 ‘현모양처’상이 민권개화계몽운동, 국권회복운동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지적한다.

본고는 여성교육에 관련한 사건들의 사실관계를 추적할 때 첫 번째 경향인 역사

2) 박용옥, 「개화파의 여성개화사상」, pp. 31~55, 「찬양회의 조직과 활동」, pp. 57~78, 『한국근대 여성운동사』,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와, 역시 같은 저자의 책인 「한말 여성운동의 특성과 여성의 사회진출」, 『한국 여성근대화의 역사적 맥락』, 서울: 지식산업사, 2001, pp. 341~389.을 참고하라.

3) 전경옥 외, 『한국여성 근현대사①: 개화기-1945년 - 한국여성 정치사회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2004.

4) 이송희, 「한말·일제하의 여성교육론과 여성교육정책」, 『여성연구논집』 제16집, 2005, pp. 187~221.

5) 홍인숙, 「여학교 주변의 여자들 -신문·잡지에 나타난 제도교육 최초 형성기(1898~1910)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13권, 2006, pp. 103~135.

6) 이형량, 「근대이행기 조선의 여성교육론」, 하야카와 노리요 외 저, 이은주 역, 앞의 책, pp. 131~152.

연구들을 참고하였다. 한편 두 번째 경향의 논의들과 같이 여성교육을 둘러싼 남성 지식인들과 여성들의 입장을 대립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지양할 것이다. 세 번째 경향인 이형량의 연구는 여성교육을 국민 국가 형성의 차원에서 조망했다는 점, 그리고 『독립신문』과 찬양회의 협조적 관계에 대해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와 상대적으로 유사성을 보인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과 논의들을 요약적으로만 제시하고 있으며 두 번째 경향과 마찬가지로 양자의 복합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다. 본고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여성교육과 관련한 당대의 1차 자료들을 직접 인용한 담론 분석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한 남성지식인들의 여성교육론이 여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여성들이 남성지식인들의 언어와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그들과 공조하고, 때로는 남성지식인들의 논의에서 더 급진화 되는 등의 일련의 과정들, 즉, 양측의 복합적인 상호관계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1896~1903년이라는 시기에 ‘여성교육’이라는 화두는 여성의 국민화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들이 발생하여 결합·충돌하는 장이었다. 본고의 연구대상은 이 시기의 여성교육론에 나타난 여성의 국민화 양상이다. 이것을 조망하기 위해서 여성교육론을 최초로 주도했던 『독립신문』과 최초 여성단체로서 여성교육권을 주장한 찬양회(贊襄會)의 1차 문헌을 중심으로 당시의 여성교육을 둘러싼 담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II장에서는 『독립신문』에 영향을 끼친 초기 개화지식인들의 여성교육론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독립신문』의 여성교육론을 신문의 논설들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IV장에서는 찬양회가 발표한 1차 문헌 분석하고 그들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당시 신문들을 통해 이에 대한 남성지식인들의 반응을 분석하기로 한다. 끝으로 V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근대이행기 ‘여성교육론’의 의의와 정치적 의미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II. 초기 개화지식인의 여성교육론: ‘국민의 어머니’를 위한 여성교육

최초로 여성교육에 대해 언급한 문헌으로는 최초의 근대 신문인 관보 『한성순보』를 꼽을 수 있다. 외국의 학제에 대해 소개하면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 모두가 5세에서 13세까지 취학을 허용하는데’<sup>7)</sup>라고 언급하여 여성들 역시 교육을 받는 외

7) 「학교」, 『한성순보』, 1884년 3월 18일.

국의 현실을 알리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박영효는 보다 직접적으로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는 「개화에 대한 상소」에서 “設小中學校 使男女六歲以上 皆就校受學事”<sup>8)</sup>, 즉, 학교를 설치하여 6세 이상의 남녀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여성교육의 효용과 필요성을 강조한 인물은 유길준이다. 그가 1889년에 완성하고 1895년에 출간한 『서유견문』에서 그의 여성교육론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가 10세 되기 전에는 그 아이를 양육하는 책임이 오로지 그 어머니에게 있고, 10세가 된 뒤에는 그를 교육하는 방법이 모두 그 아버지에게 있다. 그런데 10세 이전이 10세 이후보다 훨씬 어렵다. 남의 어머니가 되어 지식이 없으면 어린이를 보육할 방법이 반드시 적어지리니. 온 나라 어린이들의 부모가 모두 지식이 없게 되면 이로 인해 나라가 쇠미해질 것이다. 그들을 나라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그 책임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러니 아아, 그 누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며 나라를 걱정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이치로 미루어 생각해 보면 어린이는 나라의 근본이고, 여자는 어린이의 근본이며, 지금의 어머니는 옛날의 동녀(童女)다. 그러므로 동녀가 실상은 나라의 근본을 만든 근본이니, 그가 만약에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나라의 근본을 이루는 근본이 되기는 고사하고, 그 근본을 병들게 하거나 해칠 뿐이다. 참으로 삼가고 두려워할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어린 사내아이와 계집아이가 10세가 되기 전에 양육하는 책임은 여자에게 있으니, 배우지 못한 여자에게 어린이를 잘 가르치라고 책임지우는 것은 장님더러 단청을 분별하라고 하거나 귀머거리더러 음악을 논평하라고 하는 것이나 같다. 그 성과가 이뤄지기를 어찌 바라겠는가. 그러니 여자를 교육하는 것은 그 책임이 전적으로 남자에게 있다. 이를 통해 살펴본다면 남자는 나라의 근본을 이루는 근본을 기르는 직분을 스스로 맡은 자이다. 그러므로 여자가 지식이 없는 것은 그 죄가 실상 남자에게 있다. (유길준, 「어린이를 양육하는 방법」, 『서유견문』(1895))<sup>9)</sup>

유길준은 장차 국민이 될 어린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국민의 어머니’로서의 여성을 상징하고 여기에 근거한 여성교육론을 이야기한다. 이 글에서는 유교적 전통

8) 박영효, 「개화에 대한 상소」, 신동아편집실, 『근대한국명논설집』, (서울: 동아일보사), 1979, p. 19.

9) 유길준 저·허경진 역, 「제12편 어린이를 양육하는 방법」, 『서유견문』, 서울: 서해문집, 2004, pp. 333-334. 이하 모든 수록된 원문에서 강조는 필자. 여성교육의 필요성이 ‘어린이를 양육하는 방법’이라는 장에서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여성교육에 대한 유길준의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에서 여성의 권한 밖에 있었던 자녀교육이 여성의 역할로서 사고되고 있다.<sup>10)</sup> 이때 여성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국가건설’과 ‘국민양성’이다. 어린아이는 국가의 근본이므로 어린아이를 잘 가르치는 것은 국가의 중대과업이다. 따라서 아이의 양육자이자 교육자인 여성의 교육은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로 부각된다. 사적영역의 존재였던 여성은 국민이 될 자녀를 직접 교육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이로써 여성들인 ‘국민의 교육자’라는 일종의 공적 지위를 갖고 국가와 연관을 맺는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성교육이 여성 자신의 교육권이라는 차원에서 사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주장에서 여성에게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여성 그 자신의 지식 습득과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국가의 필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라의 근본인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근본인 어머니, 어머니의 근본인 어린 여자아이, 그리고 근본인 근본을 길러내는 남성’이라는 ‘나라의 근본’에 관한 이 연쇄 속에서 단일한 주체로서의 여성, 인간으로서의 여성은 해체된다. 오직 ‘국민의 어머니’와 ‘어머니가 될 동녀(童女)’라는 ‘기능’의 차원에서 사고될 뿐이다. 어린 여자아이가 교육을 받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 성장하여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기여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사고는 부재한다. 어린 여자아이가 자라서 될 것은 하나뿐이다. ‘국민’이 아니라 ‘국민의 어머니’가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이 규중에 간혀있던 여성이 ‘국민의 어머니’로서 국가와 관계를 맺는 순간, 국민형성의 무대 뒤편으로 밀려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국민의 어머니’인 여성은 그 자신이 국민이라기보다는 국민 양성의 밑거름으로서 호명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성교육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성에게 있다는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은 남성을 통해서만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국민이 될 남자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존재이다. 장성한 남성과 어린 남자아이가 국민의 계보를 잇는 현장의 중간에서 여성은 그 매개자로서 ‘사용’될 뿐이다. 이처럼 개화지식인의 언술 속에서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국민형성에 동원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이후 남성 지식인들에 의해 계승되어 여성교육론의 주요 근거로서 자리 잡게 된다.

10) 원래 당시 여성의 활동영역은 ‘내외법’아래 심규(深闕, 여자가 거처하는 깊이 들어 있는 집이나 방)로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여필종부’·‘부부유별’이라는 부부관계의 규범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따라야만 하는 존재였다. 자식교육 역시 아버지가 결정짓는 문제로서 어머니가 관여하는 일은 없었다. (이형량, 앞의 책, pp. 138~139.)

### Ⅲ. 『독립신문』의 여성교육론

#### 1. 『독립신문』의 남녀동등론

청일전쟁(1894~1895년) 이후에는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 국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이 더욱 강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문명개화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어졌다. 근대적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대중계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계몽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노력들 중에서도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은 이 시기 계몽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독립협회 활동과 『독립신문』 발간 작업을 주도했던 서재필·윤치호는 미국식 교육과 생활양식, 사회구조와 서양문화에 대해 이해가 깊은 인물들이었다. 이들의 사상을 담고 있었던 『독립신문』은 창간 당시부터 남녀불평등사회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남녀동등권을 주장하였다. 창간호의 발간취지를 밝히는 논설에서 이러한 지향을 확인할 수 있다.

모도 언문으로 쓰기는 남녀 상하 귀천이 모도 보게 흠이요. …(중략)… 이 신문을 인연 하여 너의 남녀 상하 귀천이 모도 조선일을 서로 알 터이옵. …(중략)… 국문만 잘 하고 다른 물정과 학문이 잇스면 그 사람은 한문만 하고 다른 물정과 학문이 업는 사람보다 유식 하고 높은 사람이 되는 법이라. 조선 부인네도 국문을 잘 하고 각식 물정과 학문을 비화 소견이 높고 형실이 정직하면 무론 빈부귀천 간에 그 부인이 한문은 잘 하고도 다른 것 물으는 귀족 남주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법이라. 우리 신문은 빈부귀천을 다름업시 이 신문을 보고 외국 물정과 너지 스정을 알게 하라는 뜻이니 남녀노소 상하귀천 간에 우리 신문을 호로 걸너 몇돌만 보면 새 지각과 새 학문이 싱길 걸 미리 아노라. (『논설』, 『독립신문』, 1896년 4월 7일)

식자층은 여전히 한문을 사용하고 한글은 그보다 열등한 것으로 여기는 풍조가 남아있던 사회에서 위와 같은 논설은 대단히 파격적인 것이었다. 특히 국문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을 습득한 ‘부인’들이 한문만 잘 알고 다른 것은 모르는 ‘귀족 남자’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고는 당시 사회의 전통적 위계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이다. 또한 『독립신문』을 통해 남녀노소 상하귀천에게 새 지각과 새 학문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부분에서 대중 계몽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이 여실히 드러난다.

여성교육론은 이 시기 계몽운동의 주요 이슈의 하나로서 등장하였다. 계몽운동에 적극적이었던 『독립신문』이 앞장서서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조선 부인네들도 츠츠 학문이 높히지고 지식이 날너지면 부인의 권리가 사나회 권리와  
갓흔 줄을 알고 무리흔 사나회들을 제어흐는 방법을 알니라. 그러키에 우리는 부인네들  
과 권호노니 아뭇조록 학문을 높히 비화 사나회들보다 형실도 더 높고 지식도 더 널퍼  
부인의 권리를 찾고 어리석고 무리흔 사나회들을 교육호기를 베타노라. (『논설』, 『독립  
신문』, 1896년 4월 21일)

이 지문에서 『독립신문』은 ‘남녀의 권리가 동등하다’는 관점에서 여성들이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를 권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어리석은 남성들을 교육하기를 바란다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여성은 남성들에 의해서만 교육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서술했던 유길준의 논의에 비하면 상당히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독립신문』의 여성교육론은 유길준의 논의와 단절하고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을 위한 여성교육론을 주장했던 것일까? 다음 장에서는 『독립신문』의 여성교육론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 2. 『독립신문』의 여성교육론

『독립신문』의 여성교육론이 대단히 급진적이었고 이것이 당시의 여성들을 크게 각성시킨 것은 사실이나 그들이 오직 ‘남녀동등권’의 입장에서만 여성교육을 주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들은 여성교육을 문명개화의 척도이자 국력의 원천, 그리고 현모양처 양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독립신문』의 여성교육론은 철저히 그들이 구상하던 사회변혁과 근대적 국가건설, 그리고 계몽운동의 틀 안에서 철저히 그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요구되었던 것이었다.

### 1) 여성교육은 문명개화의 척도

문명기화호 나라에서들은 전국 인구 슈효중에서 학교에 가는 사름들이 빅명에 구십  
오명 이상이 가고 부모들이 츠질 스랑호는 근본이 그 으희들을 아모썸록 학교에 보내여  
아모썸록 학문을 비화 츠기들보다 지식이 높고 지쵸가 더호야 세계에 나가 버러 먹고 살  
도리를 호여 주거늘 조선 부모들은 츠기의 츠질들을 츠기보다 나흔 사름들이 되게 교혹호

싱각들을 아니 하고……. (『논설』, 『독립신문』, 1896년 9월 5일)

정부에서 학교를 지어 인민을 교혹하는 거시 정부에 데일 쇼중헌 직무요 다른 일을 아  
즉 못흐드리도 정부에서 인민교혹은 하여야 할 거시라. 나라히 지금은 이러케 약하고 백성이  
어두워 만스가 놈의 나라만 못하고 놈의 나라에 업수히 녀임을 맞으나 조선도 인민을  
교혹만 하면 외국과 꺾치 될지라. 지금 장성헌 사람들을 무론남녀하고 교혹을 식히라고  
하면 밋우 어렵거니와 자식들을 놈의 나라 으히들 꺾치 교혹을 식혀야 그 으히들이 자  
라셔 놈의 나라 슨몹꺾치 될 터이니 굿대나 조선도 놈의 날꺾치 되기를 브랄 터이라.  
(『논설』, 『독립신문』, 1896년 5월 12일)

즈고이리로 어느 나라 슌기를 보던지 녀인의 교육을 도라 보지 아니하는 나라는 무식하고  
잔약하고 맛춤니 망하며 녀인의 교육을 힘쓰는 나라는 점점 흥왕하는 것은 구미 각국을  
보아도 알겠도다. …(중략)… 기화헌 나라의 녀인은 학문이 남즈와 다를 것이 업셔서  
무슴 일이던지 가히 의론홀몬호고로 안호가 되면 남편을 도아 대쇼스를 꺾치 분별하며  
즈녀를 올흔 길노 교육해야 집안이 문져 응호는고로 전국이 즈연 흥왕하니 서양 녀인은  
과연 너조라 호는 것이 울커니와 동양 녀인들은 불과 사나회의 노복이라 엇지 통탄호지  
안으리요. (『녀인교육』, 『독립신문』, 1898년 9월 13일)

서구적 근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지향했던 『독립신문』의 필진들은  
조선의 사회현실을 비판할 때 조선의 거울상으로 문명개화한 구미 국가들을 제시  
하는 서술방식을 종종 사용한다. 즉, 문명개화된 서구와의 대조를 통해 조선의 후  
진성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논법은 교육문제, 그 중에서도 여성  
교육 문제에 대해 논할 때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1896년 9월 5일의 논설은  
문명개화한 나라의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반면 조선 부모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꼬집어 비판하고 있다.

1896년 5월 12일의 논설은 국가자강의 관점에서 인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이 논설에서 백성의 무지는 조선이 현재 백성 교육이  
잘 된 다른 나라보다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남녀를 막론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국가자강의 해법이 된다. 조선의 남녀 아이들이  
'남의 나라 아이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장성하면 '남의 나라 사람처럼' 될 것이고 그  
때야 비로소 조선도 '남의 나라 같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서 말하는 '남의  
나라'는 물론 문명개화한 구미 국가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논설에서 남녀 구별

없이 시행되는 국민교육은 문명개화의 척도로서, 또한 문명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룩해야 할 목표로서 사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98년 9월 13일의 논설은 선진적인 구미 각국이 여성교육에 힘써서 점점 국가가 번성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결국 국망(國亡)에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여성교육을 국가의 생존과 직접 연결 짓고 있다. 또한 개화된 서양과 그렇지 못한 동양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때 개화의 척도가 되는 것은 여성교육이다. 여성들이 교육을 받은 서양과 그렇지 못한 동양 각지에서는 여성에 대한 대우 역시 큰 차이가 있음을 대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적 여성상으로 제시된 교육받은 서양여성은 아내로서 남편을 돕고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하여 진정한 내조를 실천하는 모습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여성상은 오늘날 회자되는 '현모양처'상과 일치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모양처의 양성은 여성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이를 통해서 현모양처는 전통적 여성상이 아닌 서구로부터 유입된 근대적 여성상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sup>11)</sup>

## 2) 여성교육은 국력의 원천

조선에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국 인구 슈효와 비교하여 보면 오천 명에 하나회 학교에 가지를 못하니 후성을 가르치지를 아니하면 필경 조선은 잘 되야 보는 날이 업슬 터이니 엇지 한심흔 일이 아니리오. ... (중략) ... **조선 명부에서 매일 급하게 할 일이 사내의 희들도 가르치려니와 계집의 희들을 교육할 생각을 하여야 할터이니** 조선서는 계집의 희들은 당초에 사름으로 치지를 아니하여 교육들을 아니 식히니 전국 인구 중에 받은 그만 내버렸는지라 엇지 앓갑지 안하리오. 학부에서 사내의 희들도 가르치려니와 불상한 조선 계집의 희들을 위하여 녀학교를 몇출세워 계집의 희들을 교육을 식히거드면 몇히가 아니 되어 **전국 인구 반이나 내버렸던 거시 쓸 사람들이 될 터이니 국가 경제학이 이런 리는 업고** (『논설』, 『독립신문』, 1896년 9월 5일)

1890년대에는 제국주의 열강의 위협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근대적 자주 국가를 세우는 것은 시대의 과제였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이고 당시의 개화지식인들 역시 국가건설의 기반이 될 국력의 신장에 관심을 쏟았다. 그리고 국력이라는 것은 민력(民力), 즉, 국가 구성원 개개인의 힘을 기를 때 비로소 증강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시기에 대중을 상대로 한 계몽운동이

11)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형량, 앞의 책, pp. 138~139를 참고하라.

시도되었던 것이며 신문들이 대중계몽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수행하였다.

여성은 규중의 존재로만 사고되는 유교사회의 관념을 따른다면 남성만이 국가와 관계를 맺는 존재로서 국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서 벗어나 있었던 『독립신문』의 주필들은 여성들 역시 국민이며 국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사고하였다. 따라서 지금껏 교육받지 못해왔던 여성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쓸모 있는 국민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것은 국력신장으로 직접 연결되게 된다. 여성들을 교육시켜 국가에 유용한 국민으로 길러내는 것은 없던 국민이 갑자기 생겨나 민력이 두 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896년 9월 5일 논설이 지적인 바와 같이 ‘국가 경제학’에 이보다 더 큰 ‘이익’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에 따르면 여성은 교육을 통해 규중으로부터 벗어나 국가와 관계를 맺고 시민권을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의 활동영역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철저히 국가적 필요에 의해 가정에서 국가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여성교육론에서는 여성이 여성 자신의 각성과 투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시민권을 부여받게 된다. 이 때 ‘국가의 위기 상황’이 여성 시민권 획득의 촉매제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조의 담론은 1905~1910년의 여성들이 주도한 국채보상운동과 여학교설립운동, 여성의병활동 등에서도 발견된다.<sup>12)</sup> 문명개화론자들이 주장한 여성동원의 담론이 사회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수용되어 그녀들 자신에 의해 다시 발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았던 한국에서 발견되는 여성 정치사의 한 특색이라고 볼 수 있다.

### 3) 지혜로운 아내와 현명한 어머니 양성을 위한 여성교육

정부에서 학교 몇칠 지금 시작하야 으희들을 가르치나 계집으희 가르치는 학교는 업스니 정부에서 빅성의 즈식들을 교혹홀 때 엇지 남녀가 충등이 잇게 하리요. 계집으희들은 조선 으희가 아니며 조선 인민의 즈식되기는 일반이어늘 오라비는 정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권이 잇스되 불상흔 계집으희는 집에 가두워 노코 가르치는 거슨 다만 사나희의게 종노릇홀 직무만 가르치니 우리는 그 계집으희들을 위하야 분히 녀이노라. 정부에서 사나히 으희들을 위하야 학교 하나를 짓거드면 계집으희들을 위히서 또 하나를 짓는 거시 맛당흔 일이니 원컨디 정부에서 문져 조선 인민 생각하기를 공평 이즈만 가지고 호고

12) 보다 자세한 논의는 전경옥 외, 앞의 책, pp. 187~197, pp. 205~218 참고.

남녀노쇼 상하빈부 분간업시 혼 범률노만 다스리기를 바라노라. 사나회오희들은 자라면 관인과 학사와 상고와 농민이 될 터이요 계집오희는 자라거드면 이 사롬들의 온희가 될 터이니 그 안희가 남편만큼 학문이 잇고 지식이 잇스면 집안 일이 잘 될 터이요 쏘 그 부인네들이 즈식을 낫커드면 그 즈식기르느 법과 ㄱ르치느 방칙을 알 터이니 그 즈식들이 충실홀 터이요 학교에 가기 전에 어미의 손에 교혹을 만히 밧을 터이라. 그런 즉 녀인네 직무가 사나회 직무보다 쇼중ㅎ기가 덜ㅎ지 아니ㅎ고 나라 후성을 비양ㅎ는 권이 모도 녀인네에게 잇스 즉 엇지 그 녀인네들을 사나회보다 천디ㅎ며 교혹ㅎ는 디도 등분이 잇게 ㅎ리요. (「논설」, 『독립신문』, 1896년 5월 12일)

위 논설은 관립여학교의 부재를 문제시하며 여학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때 근거가 되는 것은 교육에 대한 남녀동등권이다. 그러나 여성교육의 효용을 말하는 부분에서는 앞서 살펴 본 유길준의 논의와 유사한 서술이 눈에 띈다. 논설에서는 남자아이들은 자라서 관인과 학사와 상인과 농민이 될 것으로 사고되는 반면 여자 아이들은 자라서 이 사람들의 아내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독립신문』은 남녀동등권의 입장에서 차별 없는 국민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여남이 동등하게 교육을 받는다 해도 결국 전혀 다른 국민으로 길러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남성은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반면, 여성은 그러한 남성의 ‘아내’로서만 사고되는 것이다. 다만 교육을 통해 여성은 전통 사회의 ‘종복 같은 아내’에서 능력과 교양을 갖춘 ‘현명한 아내’로 길러질 뿐이다. 교육받은 여성은 관인과 학사와 상인과 농민의 아내로서 가정살림과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의 전문가가 되어 다시 관인과 학사와 상인과 농민이 될 자녀를 길러낸다. 그것이 교육받은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의 전부였다.

녀즈를 교육ㅎ여 노케 되면 나라에 대단히 유조ㅎ 일이 여러 가지 잇스니 첫지는 지혜잇는 부인들도 국소를 의문ㅎ야 정치가 진보케 ㅎ 것이요. 둘째는 남즈가 혼인 후에 집안 일을 서로 의문ㅎ야 가도를 흥왕케 ㅎ되 룹히 그 남편을 도와 편지도 디셔ㅎ며 문서도 기록ㅎ며 한가홀 쎄에 서책을 보며 학문을 토론ㅎ니 집안에 화기가 충만ㅎ야 빅년을 히로 ㅎ는 니외가 될 쏘 아니라 싱전에 정근ㅎ 친구가 될 것이요. 셋지는 어린 오희들이 ㅅ세 이전에는 항상 그 모친의 휘하에 자라며 언행과 동정을 비호나니 그 어마니가 학문이 잇스면 학교에 보니기 전에 그 모친이 곱오치리니 이것은 양육ㅎ는 모친만 될 쏘 아니라 녀즈의 스승이 되는 리치라. (「녀학교론」 『독립신문』, 1899년 5월 26일)

위 논설은 교육받은 여성을 철저히 국가와 남편과 자녀의 효용을 위한 존재로 사고하고 있다. 국사를 의논하여 정치를 진보하게 하지만 그녀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나 교양 있는 '의논'의 수준이다. 교육받은 아내는 남편의 훌륭한 비서이자 토론상대이자 친구가 되고 이 역할들을 수행함으로써 가정은 더욱 화목해진다. 이 대목에서 아내는 철저히 남편의 보조자일 뿐 자기 자신의 직업을 가진 존재로는 사고되지 않는다. 또한 유길준에게서부터 강조되었던 자녀양육의 책무가 이 논설에서도 발견된다. 교육을 받은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았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가정 안에서만'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규중'에 갇혀있던 여성들은 교육을 통해 밖으로 나오자마자 다시 '가정'으로 들어가길 요구받았던 것이다.

지금까지 『독립신문』의 여성교육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독립신문』은 구체제의 여성억압을 타파할 것을 촉구하였고 '남녀동등권'을 내세워 여성교육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변화의 목적은 여성 자신의 해방이 아니라 국가 형성과 가정의 근대화를 위해 필요한 여성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이는 곧 『독립신문』이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했던 서구 근대화 모델 역시 또 다른 여성억압의 논리를 내포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여성교육 담론이 유통되고 있던 현실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이 논의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생각을 키워나갔는지에 대하여 찬양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 IV. 여성들의 목소리: 찬양회(贊襄會)의 활동을 중심으로

##### 1.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발표와 여성단체 찬양회(贊襄會)의 결성

###### 1) 「여권통문(女權通文)」: 충(忠), 문명개화론, 남녀동등권을 근거로 한 여성 교육론

계몽운동의 열기가 더해가고 여성교육론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던 상황에서 당시 조선사회로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의 부인들이 한국 최초의 여권선언이라 할 수 있는 「여권통문」을 발표한 것이다.



대저 물이 극흐면 반다시 변하고 법이 극흐면 반다시 갓춤은 고금에 써덧흔 리치라. 아  
동방 삼천리 강토와 렬성조 오뵝여 년 괴업으로 승평일월에 취포무스히더니 우리 성상폐  
하의 외외탕탕하신 덕업으로 림어히옵신 후에 국운이 더욱 성왕하야 임의 대황데 위에  
어히옵시고 문명화화홀 정치로 만기를 총찰하시니 이제 우리 이천만 동포 형테가 성  
의를 효순하야 전일 히티흔 힘습은 영영 버리고 각각 기명흔 신식을 준히홀시 스스이  
취셔되여 일신 우일신함을 사름마다 힘쓸 거시여늘 엇지하야 일향 귀떡고 눈먼 병신  
모양으로 구습에만 빠져 잇는노. 이거시 한심헌 일이로다. 혹자 이목구비와 스지오관  
륙테가 남녀가 다름이 잇는가. 엇지하야 병신모양으로 사나희의 버려쥬는 것만 안져  
떡고 평성을 심규에 처하야 늬의 절제만 밧으리오. 이왕에 우리보다 문져 문명기화헌  
나라들을 보면 남녀가 동등권이 잇는 지라 어려서부터 각각 학교에 든니며 각종 학문을 다  
비호아 이목을 널펴 장성한 후에 사나희와 부부지의을 후대함을 밧음은 다름 아니라 그  
학문과 지식이 사나희아 못지 아니헌고로 권리도 일반이니 엇지 아릅답지 아니허리오.  
슬프도다 전일을 생각허면 사나희가 위력으로 녀편네를 압제허라고 한갓 넷글을 빙자하야  
말허되 녀즈는 안에 잇셔 밧글 말허지 말며 술과 밥을 지음이 맛당허다 허는지라. 엇지허여  
스지륙테가 사나희와 일반이여늘 이곳흔 압제를 밧어 세상 형편을 알지 못허고 죽은  
사름 모양이 되리오. 이저는 넷 풍규를 전폐허고 기명 진보허야 우리나라도 타국과 궤치  
녀학교를 설립허고 각각 녀아들을 보니여 각항 지조를 비호와 일후에 녀중군즈들이  
되게 허을 초로 방장 녀학교를 창설허오니 유지허신 우리 동포 형테 여러 녀중 영웅호  
걸남네들은 각각 분발지심을 내여 귀흔 녀아들을 우리 녀학교에 드러보니시라 허시거든  
곳 착명허시기를 바라나이다. 구월 일일 녀학교 통문 발기인 리소스 김소스. (「여권통문」  
1898년 9월 1일 발표. 「녀학교」, 『독립신문』 1898년 9월 9일: 「五百年有」, 『皇城新聞」,  
1898년 9월 8일)

위의 글에서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성상폐하’에 대한 언급이다. 군주가  
앞장서서 문명개화한 정치를 실천하는 상황에서 백성들 역시 그 신민된 도리로서  
구습을 타파하고 문명개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며 글이 시작된다. 이는 통문을  
작성한 여인들이 군주제사회였던 당시의 정치규범을 내면화하고 ‘신(臣)’의 입장에서  
‘충(忠)’을 내세우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조선 사회에서 ‘신(臣)’이 될 수 있는  
것은 남성들뿐이었다. 물론 글의 서두에서 잠시 나타나는 ‘성상폐하’에 대한 언급은  
의례상 포함시킨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성들이 직접 ‘군주’를 언급  
하고 그 군주의 뜻에 따를 것을 주장하는 발화주체가 되었다는 점은 충분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통문에서 여성들은 충(忠)을 토대로 하는 기존의 정치질서를 수용하는 것 못지

않게 당시의 새로운 과제였던 문명개화의 관점에서 사회를 비판하고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문명개화한 서구를 이상향으로 상정하고 그와 같이 변화할 것을 촉구하는 논법은 『독립신문』의 그것과 닮아 있다. “우리보다 먼저 문명기화한 나라들을 보면 남녀가 동등권이 있는 지라…”라는 구절과 “넷 풍규를 전폐하고 기명 진보해야 우리나라도 타국과 꺾치 녀학교를 설립하고…”라는 구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통문을 작성한 여성들이 당시 남성개화지식인들의 논의를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음을 시사한다. 또한 문명개화가 시대적 과제로 여겨졌던 상황에서 그 논의를 빌어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법은 전략적으로도 효과적인 것이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통문을 작성한 여성들은 군주정이라는 정치현실, 그리고 문명개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들 역시 그러한 시대상과 부합하는 행동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여성교육권을 주장하는 것은 여성들 자신의 요구를 제시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충(忠)이라는 당시의 정치 규범에 입각한 발화였으며 문명개화라는 국가적 과업에 참여하는 한 방편이었다. 이처럼 여성들은 교육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국가라는 공동체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러나 「여권통문」이 반드시 국가와의 연관 속에서만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통문의 여성교육론을 정리하자면 ‘남녀가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남성의 압제를 받고 있다. 이것의 원인은 여성의 무지이며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구와 같이 여성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다. 통문을 작성한 여성들은 여성의 종속적 위치와 남성의 여성억압을 분명히 인식하고 문제상황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나희가 위력으로 녀편네를 압제허랴고 한갓 넷글을 빙자하여 말허되 녀즈는 안에 잇셔 밧글 말허지 말며 술과 밥을 지음이 맛당허다 허는 지라.”, “엇지허여 스지룩테가 사나희와 일반이여늘 이곳흔 압제를 밧어 세상 형편을 알지 못허고 죽은 사름 모양이 되리오.”, “이왕에 우리보다 먼저 문명기화한 나라들을 보면 남녀가 동등권이 있는 지라”와 같은 구절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통문을 통해 근대이행기 여성들에게도 ‘여성억압을 문제시하고 여성해방을 지향하는’ 사고가 싹트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성상폐하를 거론하고 문명개화를 주장하며 글을 시작하긴 했지만 그녀들은 국가적 필요에서 여성교육을 주장하는 관점에서 더 나아가 여성이 차별받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타파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성

교육이 고려되고 있다. 서양여성들의 경우,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 학문과 지식수준이 남성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남성과 권리도 같은 것이라는 서술에서 이러한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권통문」에서 여성교육이라는 이슈는 여성들이 남녀불평등의 현실을 인식하고 각성되는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또한 통문이 지향하는 여성상은 앞서 유길준의 논의나 『독립신문』에서 언급한 ‘현모양처’가 아닌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상이다. “엇지하여 병신모양으로 사나회의 버려주는 것만 안져 먹고 평생을 심규에 처하여 늙의 절제만 밧으리오.”라는 구절에서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평생 남편에게 자유를 구속받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여성들의 활동영역을 규중으로만 제한하는 현실을 비판한 이 구절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서양 여성들은) 그 학문과 지식이 사나회야 못지 아니헌고로 권리도 일반이니 엇지 아름답지 아니허리오.”와 같은 구절에서는 조선에서도 여성의 지식이 남성을 보조하는 차원으로 쓰일 것이 아니라 서양에서처럼 여남의 평등과 여성권리 보장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sup>13)</sup> 이상의 구절들을 통해서 볼 때 통문을 작성한 여성들은 ‘경제적 자립’과 ‘자유’를 지향하고 교육을 통해 ‘독립적 존재’가 되기를 열망하였다. 그녀들은 남성 개화지식인들과는 달리 남편 내조와 자녀교육의 차원보다는 여성 자신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여성교육을 사고하고 있었다.

## 2) 찬양회의 결성과 순성여학교 설립

「여권통문」의 목표는 여성교육권 획득이었고 이것을 달성을 위해서는 먼저 여학교를 설립해야 했다. 따라서 여학교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통문 발표 직후<sup>14)</sup> 여기

13) 물론 교육받은 서양의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았다는 것은 실제의 역사가 아니라 통문을 작성한 여성들의 생각이다.

14) 정확한 조직 날짜는 알 수 없으나 조직 논의의 발설과 진행으로 미루어 1898년 9월 12일을 조직일로 볼 수 있다. (박용옥, 「찬양회의 조직과 활동」, 『한국근대여성운동사』, p. 62 참조) 당시 신문들을 참고해 보면 『독립신문』 1898년 9월 12일자 기사 「괴이한 일」은 “녀학교 비설홀 초로 유지호 남녀들이 어젯기 흥문 석골 사립소학교로 모혀 의론들 호엿다더라.”이라고 서술되어 있으며, 같은 신문 1898년 9월 5일자 기사 「녀학교 찬성」에서는 “긏긏기 오전 열시에 안령슈리광하 신석린 제씨가 굽은다리 리시선씨의 집에 모혀 녀학교 설시홀 일을 상의호느디 학교 일홈은 순성(順成)이라 호고 …(중략)… 긏긏기는 약간 규모몬 덩호고 겸호야 양성원(養成院)을 설시 호엿다더라.”라는 구절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여학교 설립을 위한 양성원을 설치했다는 말인데 기사가 발표된 15일 기준으로 ‘긏긏기(긏긏저께, 삼작일)’라고 함은 사흘 전인 12일을 가리킨다. 박용옥은 이 기사를 근거로 찬양회 결성 일자를 1898년 9월 12일로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에 참여했던 부인들이 모여 단체를 결성하였다. 300~400명의 찬동자가 여기에 참여하였다. 중심적인 활동은 북촌부인들이 주도하였다.<sup>15)</sup> 이들은 반가(班家)의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유교질서에 친화력이 있었고 따라서 ‘충군(忠君)’의 이념을 내세워 「통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이 기본적인 문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의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간행되던 신문들을 읽고 신문들에서 논의된 문명개화론 및 여성교육론에 감화를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북촌은 양반, 특히 왕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나 왕족이 거주하는 고급 주거지역이었으며 「여권통문」 발기인인 이양성당(李養成堂)은 왕가 종친 출신의 여성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지위에 있던 여성들이 개화 및 계몽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은 당시 정부와 고종의 교육 개혁 움직임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정부의 개혁 움직임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국왕에 대한 충성심이 표현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sup>16)</sup>

찬양회는 관립여학교 설립운동과 함께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는 부인들에 대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였다.<sup>17)</sup> 관립여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만 운영할 목적으로 찬양회가 만든 순성여학교는 여자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은 아니었다. 따라서 찬양회는 일요일마다 정기 집회를 개최하고 연설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부인 계몽에 나섰다.<sup>18)</sup> 연설회의 강사는 주로 독립협회의 남성들이었고 주된 내용은 여성의 교육과 근대 의식 각성

---

그리고 이미 9월 26일자 『태국신문』에서는 ‘찬성원’이라는 표현이 9월 29일자 『독립신문』에는 ‘찬양회’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때 이미 이 전에 ‘찬양회’가 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15) 양반부인들이 최초의 여권운동을 주도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박용옥은 이들 부인들이 문자교육과 기초적 한문 소양을 지닌 층이어서 개화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실현시키려고 노력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리고 독립협회운동을 활발히 이끌어 온 남궁억·박은식·장지연·이종일·장효근·정교·유영석 등 개신유학자들이 자신의 가정에서도 부녀계몽에 힘썼을 것이며 이것이 여성들이 여성교육권을 주장하는 데 기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용옥, 위의 책, p. 57) 전자의 경우는 일정정도 설득력이 있다. 문자를 읽을 수 있었던 여성들이 당시의 신문들을 열심히 읽고 『독립신문』을 비롯한 신문들의 여성교육론을 적극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의 경우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한 근거로 내세우기에는 무리가 있다. 찬양회의 주도세력이 위의 개신유학자들의 부인들이나 가족들이었다면 타당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16) 전경옥 외, 앞의 책, pp. 182~183.

17) 박용옥, 위의 책, p. 346.

18) 박용옥, 「찬양회의 조직과 활동」, 앞의 책, p. 63.

이었다. 19) 『독립신문』의 「부인기회」<sup>20)</sup>라는 기사는 찬양회 집회에서 회장이 이미 발표했던 「여권통문」을 읽자 55명 회원들이 이를 경칭하고, 방청하러 왔던 100명 가량의 부인 대다수가 찬양회 가입을 신청하는 회의장면에 대해 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회원도 수백 명에 달했다는 서술을 발견할 수 있다. 진위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실제로 찬양회 활동에 대한 열기가 그만큼 뜨거웠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과장된 것이라 할지라도 『독립신문』이 그만큼 찬양회 활동을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중요한 현상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독립신문』이 중시하는 만큼 사회적으로도 뜨거운 이슈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3) 「여권통문」과 찬양회 활동에 대한 당시 신문들의 반응

본 절에서는 찬양회의 활동에 대한 당시 신문들의 반응을 살펴볼 것이다. 신문들은 대중계몽을 목표로 발간되었으며 여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소리 높여 주장하였다. 계몽 대상이었던 여성들이 각성되어 자신들의 주장대로 여성교육을 직접 요구하는 모습이 신문의 주필을 맡고 있던 남성지식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 『皇城新聞』, 『태국신문』, 『미일신문』, 『독립신문』을 검토한 결과 당시 신문들의 반응을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첫째, 각 신문의 주필들은 「여권통문」 발표와 찬양회의 활동에 대해 상당한 놀라움을 표현하는 한편 여성계몽과 교육을 위해 직접 나서겠다는 여성들의 역량을 불신하였다. 둘째, 문명개화론을 내세우며 여성교육권을 주장하는 찬양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여전히 자신들이 생각하는 현모양처로서의 여성상을 고집하였다.

#### ① 놀라움과 여성들의 역량에 대한 불신

복춘 었던 녀중군즈 슈삼 분이 기명상에 유지호야 녀학교를 설시호라는 통문이 잇기로  
**호도 놀납고 신기호야** 우리 른설을 제각호고 좌에 기지호노라.(「五百年有」, 『皇城新聞』,  
 1898년 9월 8일)

19) 전경옥 외, 앞의 책, p. 185.

20) 「부인기회」, 『독립신문』, 1898년 9월 27~28일.

우리나라 부인네들이 이런 말을 하며 이런 스업 창설할 생각이 날 줄을 엿지 뜻하였  
스리오. 진실노 회한호 빅로다. (『논설』, 『데국신문』, 1898년 9월 13일)

녀혹교 설시하라는 일들을 의론하논디 그럿케들 홀 줄은 일즉히 뜻하지 못하였논지라.  
(『부인지회』, 『독립신문』, 1898년 9월 28일)

이 시기 계몽운동의 주도자를 자칭하였던 각 신문들은 여성들의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대중계몽을 위해 한글 신문을 발간하고 여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던 신문들이지만 여성들이 자신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낼 만큼 계몽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놀라움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신문을 발간하던 개화지식인들이 당시의 조선 여성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반응이다. 「여권통문」이 발표되기 전까지 개화지식인들은 여성들이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문명개화를 위해 행동하는 ‘주체’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그들이 당시의 조선 여성들을 ‘주체적 인간’이나 계몽운동의 ‘동료’로 사고했던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계몽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각은 다음의 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드른즉 이 일 쥬션호는 부인네가 이 뜻슬 의론호지가 임의 오리서 합의호 지 거의 삼빅여  
인이라 하니 참 촌 감스호 일이어니와 이중에 었던 부인이 지식과 문견이 넉넉호야 늬의  
나라 문명호 학문으로 교수 노릇 홀만호 이가 잇는지 마치 밋을 슈 업논지라. ... (중략)...  
귀위 설시호는 바에는 힘을 좀 더 빼스면 외국에 학문 잇는 부인을 마져다가 교육호는  
일과 모든 스무를 쥬장호게 쥬션호야 학도들을 기명호 학문도 ㄱㄹ치고 행동과 사름  
교제호는 법이며 늬의 나라 사름의 생각호는 의향을 빅호게 호면 이러케 쥬션호 부인네  
들은 좀 큰 스업호 사름들이 되겜고 나라에 흥왕호 근본이 될 줄노 밋노라. (『논설』, 『데  
국신문』, 1898년 9월 13일)

위의 기사는 조선 여성들이 비록 교육권을 주장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이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여성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주장한 점이 흥미롭다. 마땅히 의지만 앞설 뿐 그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조선여인들에게 이미 개화되어 있고 학식 있는 ‘외국 여성’들은 모범이 될 만한 존재였던 것이다.

## ② 긍정적 반응과 ‘현모양처’ 여성상에 대한 고집

녀학교 통문을 본즉 대한 녀인들이 녀학교를 설치하는 일은 대한에 처음 되는 일이라 우리가 반갑고 하례하는 뜻으로 대강 의견을 말하노라. …(중략)… 사람마다 세상에 나면서부터 지각 비홀 동안은 어머니 슬하에 자라노고로 그 어머니의 지식과 학문 유모가 자녀의 교육에 크게 관계가 되는 것이니 만일 녀인교육이 성행하면 사람마다 지식 있는 어머니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성인후 후에 엇지 총명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리오. 또 안회를 동양 문주에는 니조라 하니 이는 안에서 돕는다 흠이라. 그러하니 불행히 동양 완고한 학문에 녀인을 천히 녀이여져 녀는 기와와 집서이 갖은 천한 물건에 비하야 녀는 귀히 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심지어 강도라 하며 아비를 높히고 어미를 낮게 녀이며 안회는 밥이나 짓고 썰거나 하고 심부름이나 하는 노예로 대접하니 엇지 니조가 되리요. 기화한 나라의 녀인은 학문이 남자와 다를 것이 업서서 무슨 일이던지 가히 의론할듯하고로 안화가 되면 남편을 도아 대소사를 갖치 분별하며 자녀를 올흔 길노 교육하야 집안이 문져 응하노고로 전국이 자연 흥왕하니 서양 녀인은 과연 니조라 하는 것이 올커니와 동양 녀인들은 불과 사나회의 노복이라 엇지 통탄하지 안으리오. 대한 정부에서 인민을 위하라면 첫지 할 일이 동몽교육과 녀인교육이라 면환국 음기는데 녀여버리는 십 이만 원과 구주 각국에 쓸디 업는 스신 보려는 부비 오륙만 원과 량디아문에 헛되게 쓰는 부비 이만여 원과 급하지 아니한 군스 느리는 부비 여러 푼만 원을 모도 것두어서 이 교육에 규모 있게 셋으면 나라의 큰 경스가 되겠도다. 정부에서는 거디한 국지를 쓸디업시 녀여 버리고 급한 교육은 도라 보지 아니하거늘 몇 분 녀인들이 학교를 설치한다 하니 감사하며 지식있는 교사를 구하야 녀학교의 일흠을 헛되지 안게 성공하기를 축슈하노라. (『녀인교육』, 『독립신문』, 1898년 9월 13일)

『독립신문』은 찬양회가 결성되기 이전부터 여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신문이었다. 찬양회가 조직된 후에는 독립협회의 회원들이 남성 찬양회원인 찬성원이 되어 찬양회의 활동에 협조하였으며 그 중에서 윤치호가 남성 찬양회원의 대표인 ‘찬성원장’을 맡아볼 정도로<sup>21)</sup> 우호적이었다. 그리고 당시 신문들 중에서 찬양회에 관련된 기사를 가장 자주 신던 것도 『독립신문』이었다. 위의 기사에서도 「여권통문」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이러한 『독립신문』의 성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정부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자금들, 심지어 군사를 늘리는 비용조차도 거두어서 여학교 건립을 위해 써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21) 「녀학교찬성」, 『독립신문』, 1898년 9월 15일.

그러나 교육받은 여성에게 기대하는 가장 큰 덕목이 '현명한 어머니의 자녀교육'과 '지혜로운 아내의 내조'로 제시되어 있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여권통문」은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여성들도 규중에서 나와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급진적 주장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의 기사에서 『독립신문』은 통문에 제시된 여성들의 이상을 경청하고 이에 대해 논평하기 보다는 계속해서 자신들이 이상적인 여성상이라고 생각하는 현모양처의 육성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남성개화지식인들과 찬양회의 여성들이 모두 여성교육권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와 지향점은 서로 달랐음을 의미한다.

## 2. 관립고등여학교 설립운동

### 1) 찬양회의 상소운동

「여권통문」의 발표와 찬양회 결성에 대한 놀라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1898년 10월 11일, 찬양회 회원 100여 명이 궁궐 앞에 엎드려 왕에게 상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찬양회 회원들은 통문을 통해 여성교육권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군주를 상대로 관립고등여학교를 설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여성들이 구체적인 정치적 행동에 나선 것이다. 다음의 문헌은 상소운동 당시 여성들이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이다.

복이 학교란 자는 인지를 비양호옵고 지식을 확장호옵는 거시라. 고로 넷적에 국에 학이 잇스며 당의 상이 잇스며 가에 숙이 잇슴은 홀노 남즈만 교혹홀 뿐 아니라 비록 녀즈라도 또한 교도지방이 잇스와 내측과 규범 등 선훈이 구비호였스오며 구미 각국으로 말습호와도 녀학교를 설립호여 각항 지예를 학습호와 기명진보에 니르릿스은즉 엇지 아국에만 녀 학교가 업스오릿가 유아 대황데 폐하피옵서 중흥의 운을 옹호옵시고 독립의 업을 견호오서 도을 빅유신호시며 성택이 방유호오서 관사립학교들을 설립호샤 인지를 발달케 호오시니 의여성지라 흠송도무호와옵는이다. 대저 인지는 학문에 잇습고 학문은 교혹에 잇는지라. 근일 독립협회의 목적을 듯스은즉 충군이국호는 마음으로 공평정직호 의리를 잡아 천폐에 글월을 올리여 성충을 보좌호옵고 국강을 부지코져 한다 호오니 우리 폐하의 신민된 자ㅣ 뉴아니 흠감호오릿가. 심지어 나무장스와 과실 파는 아히씨지라도 의연금을 내여 인국지성을 표호옵는디 신첩 등 씨스은 분터지류인들 엇지 병이지심이야 업스오



릿가. 그러호나 혹 비방호는 론의와 비척호는 문즈가 업지 아니호와 청문에 현혹이 잇스으며 충역을 분번치 못호는자ㅣ 종종 유지라 호오니 이는 다름아니오라 비록 남자라도 학식이 업스와 시의에 영합호고져 호압는 주의라 그러호오면 도로혀 학문잇는 여자만도 못호오니 일로써 미루워 여자라도 호호 충인지심과 문명지학을 힘쓰는 이만 쟈지 못호은지라. 소이로 신첩 등이 찬양회를 설시호와 충이 이씨를 규중으로부터 일국이 홍왕케 호라 호오나 학교가 아니면 총혜호 녀아 등을 퇴양호 도리가 업습기로 감히 외월을 불피호압고 충장을 실패호와 제성양유어유광지하호오니 복걸성명을 김히 통축호오서 학부에 칙령을 나리오샤 특별히 녀학교을 설시호야 방년묘아 등으로 학업을 닦거 동양에 문명지국이 되옵고 각국가 평등의 더우를 맞기를 복망호압는니다. 신첩 등은 무임병영기간지 근믹스 이문호압는니다. 광무 이년 십월 십일. (『민일신문』, 1898년 10월 13일: 『독립신문』, 10월 13일: 『태국신문』, 10월 13일)

상소는 조선시대에는 간관(諫官) 등이 주로 임금에게 정사를 간하기 위해 올리던 글이다. 따라서 임금에게 상소를 올리는 것은 유교질서 하에서 제도화된 관료 및 유생들의 정치행위였다. 즉, 통상적으로 관료나 유생이 될 수 있는 엘리트 남성들이 상소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 여성은 법적으로 상소할 수 없는 존재였다기보다는 여성과 상소를 연관 짓는 사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찬양회 여성들이 이 빈틈을 비집고 나와 공적영역에 등장하였다. 군주제의 존속으로 인해 이러한 조선시대의 전통이 이어져 오던 상황에서 여성의 상소는 역사 이래 처음으로 행해진 것이었다. 찬양회 여성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남성지식인을 통하지 않고 당시 정치체도를 직접 이용하여 정부에 전달하였다. 상소행위를 통해서 여성들은 고종을 상대로 주청할 수 있는 발화주체가 되었다. 이 사건은 군주정이라는 주어진 체제 하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인 정치적 주체로서 행동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남성지식인들이 여성교육을 통해 서구적 현모양처 육성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여성들은 정치적 주체로서 거듭나고 있었다. 찬양회의 여성들은 제도적 여성교육이 시행되기도 전에 교육권 요구 단계에서부터 집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정치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성들은 통문과 마찬가지로 상소문에서도 충군애국의 이념에 입각해 자신들의 주장을 호소하고 있다. 유교질서 하에서는 남성들만이 ‘충(忠)’을 실천하고 국가와의 직접적 연관을 맺을 수 있었다. 유교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충(忠)’이 아닌 ‘열(烈)’과 ‘효(孝)’였다.<sup>22)</sup>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상소문에서 여성들은 황제의

22) 홍양희, 「현모양처론과 식민지 ‘국민’만들기」, 『역사비평』 통권 52호, 2000, p. 369.

덕을 칭송하고 있으며 충정어린 마음으로 자신들 역시 '황제의 신민'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녀들은 충정을 표현하고 나라의 장래와 진보를 논함으로써 자신들을 충군 애국의 주체로 상정한 것이다. 또한 여성도 학문을 배우면 남성 못지않은 충성된 신민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관립여학교 설립이라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서술을 통하여 여성들이 주어진 체제 하에서 스스로 '국민'을 자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규중에서부터 국가를 흥왕케 하겠다는 대목에서 여성들의 의지와 자신감이 잘 드러난다. 남성지식인들은 교육받은 여성들이 국민의 어머니이자 남편의 내조자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 즉 간접적인 방식으로 국민이 될 것을 기대하였다. 위의 상소운동에서도 여성교육이라는 이슈는 여성이 국가와 관계를 맺는 장으로서 기능하지만 그 양상은 전자와 전혀 다르다. 여성들은 교육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제도화된 정치행위인 '상소운동'을 벌였다. 이것은 국민인 남편이나 자녀를 매개로 국가와 연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국민이자 정치적 주체로서 참정권을 행사한 행위였다.

위의 상소문도 「통문」처럼 문명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교육을 통해 문명을 발전시키고 타 국가와 평등한 위치를 점하게 되기를 촉구하는 대목에서 여성들이 국가의 위기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녀들은 이것의 한 해결책으로 여성교육을 주장하였다. 글은 상소문의 형식을 띠며 군주를 상대로 써진 것이었지만 그 내용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지향을 담고 있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여성들은 개화지식인들의 문명개화론을 내면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 자신은 그 변화의 보조자가 아니라 변화를 직접적으로 추동할 세력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학교를 설립하여 학문을 닦아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었다. 사실 여성들이 상소를 하고 규방에서 나와 학교를 다니겠다는 주장 자체가 이미 유교적 규범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이처럼 '문명개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상소'라는 유교사회의 정치제도를 이용한 것은 군주제 하에서 개화를 추진한 조선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찬양회는 이러한 사회상을 수용하여 자신들의 행동에서 그대로 드러냈다. 즉, 그녀들은 주어진 체제를 넘어서는 정도의 급진성은 보이지 않았다. 여성들은 기존의 체제를 타파하는 방식이 아니라 체제로의 편승을 통해 정치행위에 참여하였다.

## 2) 찬양회의 상소운동에 대한 당시 신문들의 반응

당시 신문들은 찬양회의 상소운동에도 상당히 놀라워하면서 관련된 소식을 전하느라 바빴다. 상소문 전문은 1898년 10월 13일자 『독립신문』·『미일신문』·『태국신문』에 나란히 실렸다. 이는 당시에 찬양회의 상소가 대단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며 각 신문들로부터, 즉, 남성지식인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끌었음을 보여준다. 상소문을 대중에게 발표했던 신문들은 상소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남겼다.

너학교에서 여러 부녀들이 본월 십 일일에 상소를 하였다 하니 이는 기명호 효험이라. 동양 수천만 년을 집흔 규중에 잇서 즈기의 집안 일이라도 감히 말을 못홀 줄노 알다가 이제를 당하야 능히 나라일을 걱정하야 상소까지 하니 이후로는 대한 신즈가 전보다 비나 더흐이니 느치는 자연히 흥왕하려이와 외국 슈모도 점점 업서지겟스니 우리는 너 학교를 위하야 대단히 치하하노라.(『미일신문』, 1898년 10월 12일)

상소 목적을 대강 들으니 대더 사름은 일반인디 남즈에 버러 주는 것만 먹고 규중에 들어 안져 갖친 죄인 모양으로 권리도 업고 학문이 업슬 썩더러 어더를 다니드러도 교군을 타던지 장옷을 쓰지 아니하면 급흔 일이 잇서도 막음터로 출입을 못하니 장옷 쓰지 말고 교군 타지 말고 우산이나 들고 다니게 하야 달나고 하는 목덕이라더라. (『태국신문』, 1898년 10월 12일)

『미일신문』은 여성들이 국사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상소를 한 것을 ‘개명한 효험’이라고 평가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성들이 나라일을 걱정하는 행위가 나라가 흥왕하고 외국의 수모에서 벗어나는 것, 즉, 국력의 신장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반면 『태국신문』은 충군애국과 문명개화론을 내세워 여성교육권을 주장한 상소의 내용을 온전히 전달하지 않고 다소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 『태국신문』에 따르면 여성들이 상소한 목적은 ‘장옷 쓰지 말고 교군 타지 말고 우산이나 들고 다니게 해 달라’는 것으로 뒤바뀌게 된다. 관련 소식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킬 만큼 이들에게 적대적이지는 않았지만 『태국신문』의 반응은 찬양회의 상소운동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거나 완전히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음을 암시한다.

## 3) 상소운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립여학교설립운동의 좌절

상소를 접한 고종은 즉시 비답을 내리고 학부(學部)에 적절한 처치를 지시하였

다.<sup>23)</sup> 이에 따라 관립여학교 설립 비용을 이듬해 예산으로 책정하고 학부에서는 여학교 규칙을 작성하였다. 찬양회 여성들은 고종의 비답을 받고 “찬양회 애국가”를 지어 부르며 기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립여학교 설립은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듬해인 1899년 2월까지도 이렇다 할 정부의 행동이 보이지 않자 찬양회원들은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게 되었고 학부에 다시 수차례 청원을 하였다. 그러던 중 학부대신 신기선의 답변이 『皇城新聞』에 발표되었다. 황제의 비답에 따라 여학교 설립을 추진할 것이나 정부에서 의논하여 타협이 이루어진 후에 실시될 것이니 조치를 취할 때까지 ‘고요히 기다리고 다시 번거로이 청원하지 말라’는 내용이였다.<sup>24)</sup> 당시 학부대신이었던 신기선은 여자 교육은 물론 남학교에서 실시되는 신교육까지 반대하였던 보수적인 인물이었다.<sup>25)</sup>

이에 대해 『독립신문』은 여학교와 상공업학교 설립을 위해 탁지부에서 예산까지 마련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대신 신기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설립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다.<sup>26)</sup> 1899년 9월까지도 관립여학교가 설립되지 않자 『독립신문』은 다시 ‘이것은 혹 여자의 학문이 늘어갈까 염려하고 나라가 개명될까 두려워함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sup>27)</sup> 결국 여학교 설립안은 고종의 비답이 내려진 이후 1년 3개월여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의정부회의에서 부결되었다.<sup>28)</sup> 이로써 찬양회의 관립여학교 설립운동은 오랜 사투 끝에 수포로 돌아갔다. 이는 당시 1894~1896년에는 갑오개혁을 추진하며 개혁의지를 높였던 정부가 1900년에 이르러서는 급격히 보수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위정자들이 겉으로는 문명개화를 운운하면서도 주변화 된 세력들이 추구한 사회 변화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빠른 시일 내에는 관립여학교설립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자 찬양회는 여성교육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1899년 2월 26일, 회원들의 회비로 순성여학교를 설립하였다. 최초로 민간에 의해 설립된 이 학교는 어디까지나 정부가 관립

23) 『독일신문』, 1898년 10월 15일.

24) 「女學請願」, 『皇城新聞』, 1899년 2월 7일.

25) 진경옥 외, 앞의 책, p. 186.

26) 「무습교육」, 『독립신문』, 1899년 2월 25일.

27) 「논설」, 『독립신문』, 1899년 9월 21일.

28) 『태국신문』, 1900년 1월 26일.

학교를 설립하기 전까지만 임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세워진 것이었다. 물론 끝까지 관립학교가 지어지지 않아서 관립학교에 앞선 '임시학교'가 되고자 했던 계획은 지켜지지 않았다. 찬양회의 부회장인 김양현당이 교장으로, 서기였던 고정길당이 전임교원으로, 그리고 조선어와 한문에 정통한 외국인 여성을 교원으로 두고 운영을 시작하였다.<sup>29)</sup> 개교 당시에 모인 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천자문』·『동몽선습』·『태서신사(泰西新史)』와 재봉기술을 가르쳤다. 『천자문』과 『동몽선습』은 조선시대 서당에서 가르치던 주요 교재였으며 『태서신사(泰西新史)』는 서양(태서(泰西))의 역사를 가르치는 과목이었다.<sup>30)</sup> 한문과 한글이 각각 우월하고 열등한 것으로 서열화 된 상황에서 한글을 배우는 데 그쳤던 여성들이 『천자문』·『동몽선습』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은 물론 혁신적인 일이었지만, 문명개화와 남녀동등권을 주장했던 찬양회가 서당의 교재들과 가사(家事)를 연상시키는 재봉기술을 가르쳤다는 것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순성여학교가 개교한 1899년은 독립협회가 전년도에 있었던 독립협회사건으로 힘을 잃고, 보수적 정치세력으로부터 탄압을 받던 시기였다. 따라서 독립협회의 지지와 지원 아래 활동하던 찬양회 역시 더불어 위축되었고 이로 인해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마련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순성여학교의 교장 김양현당은 사재를 털어 어렵게 학교를 운영해갔다. 학교교육을 받고자하는 학생 중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 많아서 김양현당이 자비로 그들의 숙식까지 해결하며 교육을 시켰다.<sup>31)</sup> 그러던 중 어느 일본인에게 교사(校舍)를 저당 잡혀 학교운영비를 마련했다가 그 돈을 갚지 못하여 교사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김양현당은 여학생들을 이끌고 학부에 가서 학부의 지원이 없었던 탓에 일본인에게 교사까지 차압당하고 지낼 곳이 없어졌으니 오늘밤부터는 학부에서 머물겠다고 항변하였고 학부에서는 김양현당과 학생들을 가까스로 타일러 돌려보냈다고 한다.<sup>32)</sup> 결국 1903년, 그녀는 자신이 죽은 뒤에 조선의 여성교육은 누가 담당할 것인가를 염려하며 사망하였다.<sup>33)</sup> 그녀의 죽음 이후 순성여학교는 오래 존속하지 못했던 것으로

29) 이형량, 앞의 책, p. 141.

30) 진경옥 외, 앞의 책, p. 185.

31) 『태국신문』, 1900년 2월 27일.

32) 『校舍典日』, 『皇城新聞』, 1901년 9월 14일.

33) 박용옥, 「찬양회의 조직과 활동」, 앞의 책, p. 73.

보인다. 1903년 5월 이후로는 신문에서 찬양회 및 순성여학교와 관련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이로써 최초의 여성단체에 의해 시도되었던 여성교육권 쟁취 투쟁과 여학교 설립운동은 쓸쓸히 막을 내렸다. 여성교육권 획득은 이후 세대의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다.

我以一個女子로 我韓女子를 外國과 如히 文明教育하기를 晝夜로 天地神明께 祝壽하였  
 더니 不辛賤名이 不長하여 九泉에 歸하니 至極冤痛한 恨은 我死後에 學徒를 誰가 教育할고  
 (『皇城新聞』에 인용된 김양현당의 유언. 「吊女校長」, 『皇城新聞』, 1903년 3월 19일)

## V. 나가며: 그녀들이 생각했던 ‘여성교육’의 의미

지금까지 1896년부터 1903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에 존재했던 여성교육담론과 관련 운동에 대해서 발화주체들의 1차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초기 개화지식인들이 최초로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그중에서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은 유길준이었다. ‘국민의 어머니’로서의 여성을 상징하고 여성교육의 효용을 논했던 유길준의 논의는 이후의 남성지식인들에게 계승되어 계속해서 여성교육 필요성의 주된 근거로 제시되었다. 1890년대 중반부터 발행된 『독립신문』은 남녀노소 상하귀천의 차별 없이 대중들을 계몽하고자 하였으며 남녀동등권의 입장에서 여성교육을 주장하는 급진성을 보였다. 그러나 그들의 여성교육론 역시 순수하게 여성의 차별에 저항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목적은 아니었다. 그들은 여성교육을 문명개화의 척도이자 국력신장을 위한 방편으로 사고하였으며 여성교육의 효용을 남편의 내조자이자 자녀의 교육자로서의 여성 양성에 있다고 보았다. 근대화된 서양을 이상적 모델로 설정했던 『독립신문』의 주필들은 서양처럼 여성에게 근대식 교육을 제공하자고 주장하면서도 교육을 통해 길러낸 여성을 철저히 가정을 위한 존재로 사고하고 있었다. 이는 서구식 근대화 모델이 또 다른 여성 억압의 굴레였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인 「여권통문」이 발표되었다. 「통문」을 발표했던 여성들은 곧 이어 최초의 여성단체인 찬양회를 결성하고 관립여학교설립을 주장하며 고종에게 상소를 올렸다. 찬양회 여성들은 기존의 정치질서에 근거하여 ‘충군애국’의 이념을 전면내세우는

한편, 당시의 지배적 담론이었던 ‘문명개화론’의 입장에서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찬양회는 기성의 정치질서와 남성지식인에 의해 설패된 문명개화론을 내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제기했던 것이다. 찬양회의 여성교육권 쟁취운동은 그녀들이 국민으로서 군주와 대면하고 국가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논할 수 있게 하는 참정권 행사의 장으로서 기능하였다. 그러나 그녀들의 이러한 시도는 당시 지배층의 보수성과 주요 협력세력이었던 독립협회의 해체로 인하여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본고의 연구를 통하여 『독립신문』과 찬양회의 여성교육론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사실 독립협회와 찬양회는 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협력하며 활동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독립신문』은 당대의 어떤 신문들보다도 찬양회의 활동에 협조적이었다. 독립협회는 찬양회를 도움으로써 『독립신문』을 통해 자신들이 주장한 여성교육론을 일정 정도 실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찬양회는 독립협회가 주최하는 각종 토론회와 정치집회 등에 활발히 참가하였다. 심지어 만민공동회와 황국협회의 충돌로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 장례비용을 마련하고 장지까지 동행하는<sup>34)</sup> 다소 급진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여성교육을 위해 결성한 단체인 찬양회가 자신들이 이야기한 ‘남녀동등’의 사고에 기반 하여 그 이상의 정치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이다. 그리고 찬양회의 이러한 정치활동이 가능하도록 무대를 만드는 데에는 독립협회가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결국 보수 세력과의 마찰로 인해 독립협회가 붕괴되었으며 찬양회 역시 활동이 큰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와해되었다.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찬양회의 여성들은 기존체제의 ‘충군애국’ 정신과 남성 개화지식인들에게서 비롯된 ‘문명개화론’의 관점을 내면화하고 있었다. 또한 남성지식인들이 설패한 ‘국가적 필요에 의한 여성교육’이라는 생각을 적극 수용하여 다시 자신들의 입으로 발화하였다. 이처럼 이 시기의 여성교육론에서는 여성을 국가의 입장에서 국민화하려는 남성지식인의 목소리와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인정 받으려는 여성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둘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었고 완전히 동일한 것도 아니었다. 두 가지 목소리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결합되거나 공조하였고 때로는 차이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결국 근대이행기 조선의 여성문제는

34) 「의스장례」, 『독립신문』, 1898년 12월 2일

국가형성의 문제와 분리되어 순수하게 젠더불평등의 문제로서만 사고될 수 없었다. 서세동점이라는 시대적 상황은 여성들이 국가의 문제 속에서 여성문제를 사고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이 시기의 여성들은 국가의 필요와 여성의 입장이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여성들이 남성들의 관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고 비판하거나 여성들이 주체성을 결여한 채 국민형성에 동원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근시안적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찬양회 여성들이 ‘충군 애국’과 ‘문명개화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러한 견지에서 여성교육을 주장한 것은 스스로 ‘국민’이자 ‘정치적 주체’로 거듭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상소에 대한 고종의 긍정적인 비답을 받고난 후 그녀들이 지어 불렀다는 「찬양회 애국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애국가에서는 그녀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행동에 대해 품었던 감격, 성취감 그리고 자부심이 생생히 느껴진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녀들의 운동에서 ‘여성교육’이 가졌던 의미를 다시 한 번 음미하도록 만든다.

三千里 넓은 강토 二千 萬중 만흔 동포 순성학교 찬양회에 인국가를 드러보오 단군 기조  
 기조 년에 부인협회 처음일세 처음일세 처음일세 녀학교가 처음이세 문명 동방 대한민국에  
 황태 폐하 처음일세 성상의 높흔 은덕 하늘 아리 하늘이라 순성학교 창설호고 동포 녀조  
 만히 모하 비양 성취 호랑으로 각항 지조 굴으치니 구미 각국 부러 마쇼 문명 동방 더욱  
 좃타 萬세 萬세 億萬세라 황태 폐하 億萬세라 萬세 萬세 億萬세라 대한 데국 億萬세라 千세  
 千세 萬千세라 동궁 던하 萬千세라 千세 千세 萬千세라 순성학교 萬千세라 百세 百세 千百  
 세라 우리 동포 千百세라 百세 百세 千百세라 찬양 회장 千百세라 百세 百세 千百세라 찬양  
 회원 千百세라 (「부인회 인국가」, 『독립신문』, 1898년 10월 18일)

## 〈참고문헌〉

### 〔1차 문헌〕

- 박영효, 「개화에 대한 상소」, 신동아편집실, 『근대한국명논설집』, (서울: 동아일보사), 1979.
- 유길준 저, 허경진 역, 「제12편 어린이를 양육하는 방법」, 『서유견문』, (서울: 서해문집), 2004.
- 이해조 『자유종』, 광학서포, 1910; 인용을 위해 참고한 책은 안국선·이해조·최찬식 저, ·권영민 편, 『추월색』(안국선·이해조·최찬식 소설선, 한국문학전집 30),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7.



『독립신문』(언론재단 제공: <http://www.kinds.or.kr/>)

- 「논설」, 1896년 4월 7일.
- 「논설」, 1896년 4월 21일.
- 「논설」, 1896년 5월 12일.
- 「논설」, 1896년 9월 5일.
- 「녀학교」, 1898년 9월 9일.
- 「괴이한 일」, 1898년 9월 12일.
- 「녀인교육」, 1898년 9월 13일.
- 「녀학교찬성」, 1898년 9월 15일.
- 「부인지회」, 1898년 9월 27~28일.
- 「녀중호걸」, 1898년 9월 29일.
- 「부인상소」, 1898년 10월 13일.
- 「의스장례」, 1898년 12월 2일.
- 「무습교육」, 1899년 2월 25일.
- 「녀학교론」, 1899년 5월 26일.
- 「논설」, 1899년 9월 21일.

『태국신문』(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편, 『한국여성관계자료집 근대편(上)』,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9. 제공)

- 「논설」, 1898년 9월 13일.
- 1898년 9월 26일.
- 1898년 10월 12일.
- 1898년 10월 13일.
- 1900년 1월 26일.
- 1900년 2월 27일.

『덕일신문』(언론재단 제공: <http://www.kinds.or.kr/>)

- 1898년 10월 12일.
- 1898년 10월 13일.
- 1898년 10월 15일.

『皇城新聞』(언론재단 제공: <http://www.kinds.or.kr/>)

- 「五百年有」, 1898년 9월 8일.
- 「女學請願」, 1899년 2월 7일.
- 「校舍典日」, 1901년 9월 14일.
- 「학교」, 『한성순보』, 1884년 3월 18일.

(동방미디어 제공: <http://www.dbmedia.co.kr/>)

## [2차 문헌]

- 박용옥, 『한국근대여성운동사』,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_\_\_\_\_, 『한국 여성근대화의 역사적 맥락』, 서울: 지식산업사, 2001.
- 이송희, 「한말·일제하의 여성교육론과 여성교육정책」, 『여성연구논집』 제16집, 2005.
- 전경옥·유숙란·이명실·신희선, 『한국여성 근현대사①: 개화기-1945년 - 한국여성 정치사 회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2004.
- 하야카와 노리요 지음, 이은주 역,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형성과 젠더: 여성표상을 중심으로』, 소명출판, 2009.
- 홍양희, 「현모양처론과 식민지 '국민'만들기」, 『역사비평』 통권 52호, 2000.
- 홍인숙, 「여학교 주변의 여자들 -신문·잡지에 나타난 제도교육 최초 형성기(1898~1910)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3권, 2006.

## 심사평

우  
수  
상

정상미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 근대이행기(1896~1903)의 국민형성과 여성교육

- 『독립신문』과 찬양회(贊襄會)의 활동을 중심으로

여성의 지위와 정체성의 문제는 그 시대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사회 내에서 여성의 지위의 수준과 정체성의 내용은 그 사회의 발전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변화의 시기에 여론 주도층들이 여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여성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는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변화를 잘 반영하는 질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질문을 우리나라 근대이행기(1896~1903)에 여성 교육에 대한 담론을 통해 답하고 있다. 특히 근대화 이전 시기와 이후의 여론 주도층의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굴절을 포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아주 흥미로운 연구주제이다. 주제의 참신성과 더불어 이 글은 근대이행기 여성을 규방을 넘어 국가의 국민으로서 인식하는 변화한 여성 담론의 실제의 의미를 『독립신문』과 찬양회의 1차 문헌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독해하고 있는 아주 우수한 글이다. 뿐만 아니라 당대 남성으로서 여론 주도층의 인식과 여성 활동가들의 인식 사이의 차이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이처럼 동시대의 상이한 주체들의 여성인식의 차별성을 놓치지 않고 글의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는 점도 이 글의 장점이다.

우리의 글은 과거와 현재와의 소통이다. 역사 관련 연구는 현재의 인식과 언어 등으로 과거의 것을 충실하게 분석하고 현재 상황에서의 과거의 것의 의미를 살려 내는 작업이다. 이에 견주어 볼 때 당대의 여성 교육 담론을 통해 본 여성의 정체성 변화의 의미를 지금까지 진행 되어온 여성주의 담론과 연결하여 분석해주었다면 보다 완성도 높은 담론 분석이 가능했을 것이다. 과거와 현재와의 소통 속에서 과거

사건의 의미가 보다 명확해지고 그 사건이 진보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여성주의 담론에 비추어 당시 주체들의 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 기여한 바와 한계를 밝혀내지 못한 점이 아쉽다.

여성주의 담론에 비추어 1차문헌의 담론을 조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용어들이 애매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다. '여성의 국민화', '시민권 획득' 등의 용어가 다소 주관적으로 규정되고 정확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 용어를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한 글쓴이의 의도는 짐작이 가지만 보다 분석적이고 설득력 있는 글을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관련 분야의 담론의 흐름을 파악하고 기존의 담론과 관련하여 개념을 추출하고 자신의 논지를 피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글의 구조와 전개에 있어 서론 부분에 보다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 이 글의 '들어가며'에 언급된 기존 연구에 대한 언급이 비판적 정리 및 검토보다는 단순히 소개 및 나열에 그치고 있어 실제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연구와의 확실한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왜 근대이행기의 여성교육 담론을 분석하고자 하는지의 문제의식과 자신의 논지가 서론 부분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서술할 필요가 있다.

1차 문헌을 근거로 도출해 낸 글쓴이의 논지가 더 분명하게 제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근대이행기 상이한 주체들 사이의 국민으로서 여성 담론의 상이점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독창성이 돋보이는 글이라고 생각한다.

박현희(기초교육원 사회과학 글쓰기 강의교수)